

‘용서(容恕)’의 의의

- 이토 진사이의 사상을 중심으로 -

하라다 메구미 (성균관대학교)

1. 선행연구와 연구의의

유가 사상은 ‘타자와 어떻게 사귀어야 하느냐’에 대해 설파한 사상이다. 인(仁)은 유가 사상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다. 일반적으로 인(仁)은 사랑, 선(善), 자애(慈愛), 배려, 공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자나 맹자도 “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인(仁)을 실천하는 방법을 효(孝), 제(悌), 예(禮), 충(忠), 서(恕), 경(敬),恭(恭) 등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만큼 유가 사상에서 서(恕)는 중요한 덕목이다¹⁾. 유가 사상은 기본적으로 남을 자신과 같다고 보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서(恕)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²⁾고 해석되며 자기를 미루는 것(推己)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나 원하지 않는 것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사전에서恕자는 ‘용서(容恕)’, ‘동정’, ‘관용(寬容)’이라는 뜻이며, ‘如(같을 여)’자와 ‘心(마음)’자가 결합한 한자이다. 따라서 유가 사상에서 ‘자신과 남이 같은 마음임(如心)’으로 推己를 강조하였는데,恕자에는 ‘용서(容恕)’라는 뜻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恕를 ‘관용(寬容)’이나 ‘용서(容恕)’로 보는 견해를 비판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주희(朱熹)와 실학자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이 서(恕)를 관용으로 보는 견해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주희와 정약용은 서(恕)를 관용(寬容)으로 해석하면 비도덕적인 행위까지 용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³⁾. 그러나 이선열⁴⁾은 “관용(寬容)은 ‘다름’을 억지로 ‘같음’으로 통일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다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차이의 공존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여, 다원주의 사회에서 ‘관용(寬容)’을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다. 또한, 서(恕)를 ‘관용(寬容)’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서(恕)와 과용(寬容)이라는 각각 독립된 덕목으로써 양자는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실천의 지혜를 제시한다고 주장하였다⁵⁾. 한국에서의 서(恕)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서(恕)와 관용(寬容)은 타자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서(恕)는 ‘추기(推己)’일 뿐이며 관용(寬容)과는 나누어서 생각된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 유학자 이토 진사이(伊藤仁齋)는 서(恕)를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것”⁶⁾으로 해석하면서 “용서(容恕)하다”라고도 해석하였다⁷⁾. 그는 남의 잘못을 과(過)와 악(惡)으로 나누어 “인간의 잘못은 인정이 각박한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훈훈한 것에서 생긴다”⁸⁾고 하여, “인정이 훈훈한 것에서 생기는 것을 과(過)라고 하여 인정이 각박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의 악(惡)”과 구별지었다. 이 맥락에서 일본에서는 서(恕)를 ‘용서(容恕)’라고 해석하여 용서(容恕)와 과(過), 악(惡)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선지수(宣芝秀)⁹⁾는 과

1) 『論語』「里仁」15, 子曰：參乎！吾道一以貫之。曾子曰：唯。子曰，門人問曰：何謂也。曾子曰：夫子之道忠恕而已矣。

2) 『論語』顏淵2, 仲弓問仁。子曰：出門如見大賓，使民如承大祭。己所不欲 勿施於人。在邦無怨，在家無怨。

3) 이향준, 2020, 『서(恕), 인간의 정경다리』, 서울: 마농지, pp.217-238.

4) 이선열, 2012, 「타자 대우의 두 원칙: 관용과 서(恕)」 『울곡사상연구』 제24집, 울곡학회, pp.73-106.

5) 이선열, 2012, 「타자 대우의 두 원칙: 관용과 서(恕)」 『울곡사상연구』 제24집, 울곡학회, p.101.

6) 『語孟字義』 忠恕1: 故改之曰忖度人之心也。

7) 『童子問』 59장: 深體察人之心，則自有寬宥之意生，不至過爲刻薄。故恕又有寬宥之義。

8) 伊藤仁齋, 『論語古義』 里仁7: 人之過也，不性於薄，而生於厚。

(過)를 인간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며, 누구나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기존의 유교 사상은 사람의 동질성을 주장하여 추기(推己)를 강조하는 것에 반해 진사이는 사람의 이질성을 강조하였다. 다바타 마미(田畑眞美)¹⁰⁾는 타자와의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면서도 두려워하여 상대방에게 다가가지 못한 현대인들의 예를 들면서 '먼 거리'를 축소하는 방법으로써의 서(恕)를 제시하였다. 반대로 타지리 유이치로(田尻祐一郎)¹¹⁾는 부자 사이에도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타자에게는 이쪽에서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 자신에게도 간섭받고 싶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여 타자와의 충돌을 피하고 개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거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바타 마미와 타지리 유이치로의 주장의 공통된 점은 타자와의 올바른 '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恕)라는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서(恕)는 상대방과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상대방과의 '거리'를 파악하는 덕목이며 이러한 거리를 파악함에 있어서 생긴 과(過)를 용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서(恕)를 관용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견해를 정리함으로써 일본 유학자 이토 진사이(伊藤仁齋)의 사상과 비교하였다. 지금까지 정약용과 이토 진사이(伊藤仁齋)의 사상을 비교한 선행연구는 있었지만 용서(容恕)에 주목하여 비교한 학자는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관용의 마음이 생긴 후에 용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이토 진사이의 서(恕) 해석과 용서를 비판하고 서(恕)를 추기(推己)로 해석하는 주희와 정약용의 사상을 비교함으로써 이토 진사이(伊藤仁齋)의 용서(容恕)의 의의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진사이의 용서(容恕)는 사람과 사귀는 데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에서 이 연구가 정약용과 이토 진사이가 이상으로 삼았던 유가 사상의 근원인 공맹 사상과 비교하면서 '공맹 사상에서의 용서(容恕)의 의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주희(朱熹)와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의 容恕에 대한 비판

송대에 유학을 집대성하여 주자학(성리학)을 창시하여 완성시킨 주희(朱熹)는 충(忠)과 서(恕)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¹²⁾ 그 이유는 『論語』에서 충서(忠恕)는 일관된 도리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주희(朱熹)는 충(忠)을 '자기에게 불선함을 없앤다'고 파악하여 충서(忠恕)를 '자신에게서 불선(不善)함을 없앤 후에야 타인의 불선(不善)함을 책망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만일 서(恕)뿐이라면 자신의 불선함을 고치지 않은 상태인 채로 남의 불선함을 용서하는 일이 생기며, 그렇게 되면 서로 악을 용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³⁾

17세기 후반에 성리학을 벗어나 공자(孔子), 맹자(孟子)의 사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학파가 생겼다. 그것이 실학파이다. 그 중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은 서(恕)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데 주희(朱熹)처럼 충서(忠恕)를 강조하면 자신의 내면만 수양하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그 역시 서(恕)는 용서(容恕)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목욕을 같이 하는 사람은 벌거숭이를 꾸짖을 수 없고, 도둑질을 함께 한 사람은 담 구멍을 뚫었다고 꾸짖을 수 없다.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되, 기꺼이 서

9) 宣芝秀, 2016, 「伊藤仁齋における『改過』と『公善』-明末宗教, 倫理思想の動向の手がかりに-」 『日本思想史研究』 제48집, 東北大學大学院文學研究科 日本思想史研究室, pp.73-90.

10) 田畑眞美, 1999, 「恕-他者との共生のために」 『道徳と教育』 제301집, 日本道徳教育學會, pp.206-301.

11) 田尻祐一郎, 2005, 「<타자(他者)>의 발견-이토 진사이(伊藤仁齋)의 사상」 『민족문화논총』, 제31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238-252.

12) 이선열, 2012, 「타자 대우의 두 원칙: 관용과 서(恕)」 『울곡사상연구』 제24집, 울곡학회, p93.

13) 홍성민, 2013, 「恕의 의무적 특징과 양상-朱子와 茶山의 윤리학에서 恕의 함의-」 『東洋文化研究』 제13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pp.265-296.

로 용서하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¹⁴⁾라고 하였다. 여기서 주희(朱熹)와 정약용(丁若鏞)의 용서(容恕)에 대해 공통된 점은 ‘타자의 악을 관용을 통해 용서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 점이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악(惡)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저지른 잘못인지, 비도덕적 행위인지, 남의 마음을 해치는 것인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인지, 유가 사상에서 악(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악(惡)을 악(惡)과 과(過)로 명확히 나누어서 생각한 사람이 바로, 일본 유학자 이토 진사이(伊藤仁齋)다.

3. 용서(容恕)의 의의

이토 진사이(伊藤仁齋)는 주자학을 비판하고 『논어(論語)』, 『맹자(孟子)』를 재해석하여 독자적인 유학 사상을 형성한 인물이다. 그는 1627년 교토 상인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대학(大學)』을 읽는 것을 계기로 주자학을 열심히 공부하였다. 스물아홉부터는 독립하여 학문에 전념하였고 약 8년 동안 세속과 단절되어 은둔생활을 하였다. 그 동안에 주자학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공맹 사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깨달아 세속으로 돌아와 독자적인 사상을 전개하였다. 그는 ‘도(道)는 지금 사람들이 행하는 일, 평소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방식의 이름이다’, ‘세속을 떠난 도는 없다’고 하였다. 세속과 단절되어 번뇌하면서 만물에는 인간관계가 없는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또한, 인간관계야말로 인간의 평생의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기존의 유가 사상처럼 사람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은 단절되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도 없음을 깨달은 진사이는 용서(容恕)라는 덕목을 제시한다.

‘자기를 미루다(推己)’는 동질성을 전제함에 있어서 가능하지만 이질성을 강조하는 진사이의 사상에서 추기(推己)만으로 타자의 마음을 모두 헤아릴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그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처지와 하는 일이 어떤지 헤아려 그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여기고, 그 몸을 자기 몸으로 여겨 구석구석 체득하려 살펴 생각하고 헤아리면, 사람들의 허물은 늘 어쩔 수 없는 데서 나오거나 혹은 감당할 수 없는 데서 생겨나기에, 심하게 미워하고 싫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¹⁵⁾고 하였다. 따라서 추기(推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추기(推己)를 통해서도 아직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추기(推己)를 했는데도 발생하는 착오나 갈등을 헤아리고 타자와의 차이점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이 용서(容恕)이다.

“남의 마음을 깊이 체득하려 살펴면(體察) 저절로 관대하게 용서하는 뜻이 생겨나서, 과오에 각박해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서(恕)에는 또 관대하게 용서한다는 뜻이 있다. 무릇 사람 만나는 사이를 깊이 체득해 살펴 관대하게 용서하는 뜻을 가지면 친하고 소원하며 가깝고 먼 사이,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 대인가 소인이 각자 제자리를 갖게 되고, 인이 행해지고 의가 통달하게 되어 도가 있지 않은 곳이 없다.”¹⁶⁾

진사이는 “과(過)는 인정이 훈훈한 것에서 생기고, 악(惡)은 인정이 각박하여 잘못을 저지르기에 생긴다”¹⁷⁾고 하였다. 즉 과(過)를 저지르는 것은 타자와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며, 거리가 멀면 타자의 고통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잘못조차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

14) 이향준, 2020, 『서(恕), 인간의 정감다리』, 서울: 마농지, p.235.

15) 伊藤仁齋, 『語孟字義』 忠恕1: 苟待人付度其所好惡如何. 其所處所爲如何, 以其心爲己心, 以其身爲其身, 委曲體察, 思之量之, 則知人之過, 每出於其所不得已. 或生於其所不能堪, 而有不可深疾惡之者,

16) 伊藤仁齋, 『童子問』 59장: 深體察人之心, 則自有寬宥之意生, 不至過爲刻薄. 故恕又有寬宥之義. 凡接人之間, 深體察之, 而有寬宥之意, 則親疎遠近, 貴賤大小, 各得其所, 而仁行義達, 道莫不孚矣.

17) 伊藤仁齋, 『論語古義』 里仁7: 人之過也, 不性於薄, 而生於厚.

사이의 친척들에게 유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격렬한 반대를 받았다. 친척들은 진사이와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의 행복을 위하여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가까움’은 곧 바로 ‘이해(理解)’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가까움으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진사이가 말하는 과(過)는 타자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며 이러한 타자와의 갈등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容恕)이다.

그러면 진사이의 이러한 용서(容恕)에서는 주희와 정약용이 지적한 것과 같은 ‘악을 용서한다는 결과가 야기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주희와 정약용은 동질성을 바탕으로 서(恕)를 실천했기 때문에 추기(推己)를 했는데도 헤아리지 못하고 거리가 가까운데도 갈등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질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서가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진사이의 사상의 특징은 이질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질성을 바탕으로 서(恕)를 실천하는 주희와 정약용의 사상에서는 용서(容恕)가 불가능하며, 이질성을 바탕으로 서(恕)를 실천하는 진사이의 사상에서는 용서(容恕)는 필수적인 덕목이 된다.

이질적인 타자와 잘 어울리며 거리가 가까워지려면 타자를 진지하게 대하면서(忠) 타자의 마음을 깊이 체득하여 살피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타자와 부딪치거나 자신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타자와 진지하게 사귀려 한 증거이다. 반대로 타자와 사귀는 데 자신이 상처 받기를 두려워하거나 타자와 거리가 멀면 잘못조차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진사이의 사상에 있어 과(過)는 자신이 타자와 진지하게 사귀려고 한 증거이며 용서(容恕)는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람과 사람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容恕)는 자기 수양이며 인의 실천 방법이다.

4. 현대사회와 용서(容恕)

마지막으로 진사이의 사상을 정리하면 사람과 진지하게 사귀면 타자와의 이질성을 알게 되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용서이다. 이것은 기존의 유가 사상에는 없었던 이질성을 전제로 한 사상이며 오늘날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오늘날 ‘타자와 어떻게 사귀어야 하느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이다. 진사이가 말하는 용서(容恕)는 결코 고원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이 과정을 거친다면 보다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서로의 마스크를 쓴 얼굴밖에 모르거나 화면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진사이의 용서(容恕)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단절된 인간관계를 재구축하는 데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論語』
 伊藤仁齋, 『語孟字義』. 『童子問』. 『論語古義』.
 이향준, 2020, 『서(恕), 인간의 정감다리』, 서울: 마농지.
 이선열, 2012, 「타자 대우의 두 원칙: 관용과 서(恕)」 『울곡사상연구』 제24집, 울곡학회, pp.73-106.
 홍성민, 2013, 「恕의 의무적 특징과 양상-朱子와 茶山의 윤리학에서 恕의 함의-」 『東洋文化研究』 제13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pp.265-296.
 宣芝秀, 2016, 「伊藤仁齋における‘改過’と‘公善’-明末宗教, 倫理思想の動向の手がかりに-」 『日本思想史研究』 제48집, 東北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 日本思想史研究室, pp.73-90.
 田尻祐一郎, 2005, 「<타자(他者)>의 발견-이토 진사이(伊藤仁齋)의 사상」 『민족문화논총』 제31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238-252.
 田畑眞美, 1999, 「恕-他者との共生のために」 『道徳と教育』 제301집, 日本道徳教育學會, pp.206-301.